

Robert Vannoy 박사: 킹스, 강의 8

© 2012,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예후 이전의 분열 왕국(기원전 931-841 년)

II. 예후 이전의 분열 왕국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 숫자 “I”를 끝냈는데, 그것은 “솔로몬 통치 하의 연합 왕국, 1-11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준 개요에 있는 로마 숫자 “II”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후 이전의 분열된 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왕국은 BC 931 년에 분열되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예후의 혁명은 BC 841 년이므로 대략 100 년 기간인 BC 931-841 년을 로마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II.”

A. The Disruption 1. 배경 대문자 "A"는 "The Disruption"이고 "1"은

"Background"입니다. 당신은 열왕기상과 주석가의 성경 주석을 읽어 보십시오.

하지만 그 혼란이 아무런 선례도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배경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한동안 존재했던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호수아가

자기를 외국 땅에서 온 것처럼 대표하여 자기에 온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9 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실제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가나안 중심부에 기브온 사람들과 그 땅에 이방인으로 남아 있도록 허용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9 장 14 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맛보았으나 여호와께 묻지 아니 하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두는 화친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맹세하여 이를 승인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이웃이요 나그네가 아님을 알았을 때 여호수아 9 장 18 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19 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같이 하여 그들을 살려 두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것을 어겨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 절에 언급된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트여아림이니 이 성읍들은 가나안 땅 중앙에서 남북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는 한 성읍이니라. 때로는 북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기브온 썰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의 중앙에 거주하며 땅을 남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 외계의 긴밀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부와 남부 사이의 분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한 가지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단순히 영토와 인구에 관한 한 두 개의 주요 지파가 있었다는

사실일 수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즉 북쪽의 주요 지파인 에브라임과 남쪽의 주요 지파인 유다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유다를 다스렸을 때에도 이 시대 이전의 일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이전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치 초기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바로 위에서 통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7년 동안 다스렸지만 유다 지파만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모든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처음 몇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합니다: “훗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울이 죽은 직후의 일이다.] 그가 묻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데이비드가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라고 대답하셨다. 다윗은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4 절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오직 유다의 왕입니다. 사무엘하 5 장에서는 북쪽 지파들을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살해된 후 처음 몇 절을 읽게 됩니다. 5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은 '우리는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이끈 사람이었을 때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전에 왕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니라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 세였습니다. 그는 헤브론을 7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3 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5 절에서 다윗이 북쪽 지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전에 유다를 단독으로 통치한 7 년 6 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는 분명한 구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남북 분단에 대한 반성적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연대기에 관한 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보다 실제로 더 앞선 또 다른 요소는 다윗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사울에게 쫓기던 중 목숨을 걸고 도망하여 다윗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는 사울 통치 기간에 블레셋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유다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무엘상 30 장 26 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블레셋 성읍)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전리품 중 얼마를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가로되 `여기 있다. 여호와와 원수들이 약탈한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한 선물이니라" 하고 그것을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 안에는 유다 성읍들의 여러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동안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성읍들과 긴밀한 관계를 쌓았고, 사울이 죽자 유다는 즉시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이 당연했지만 북쪽 지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유다를 선호함 이제 앞서 언급한 또 다른 가능한 요소는 열왕기 상 4장에서 솔로몬 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솔로몬의 궁정을 지원해야 했던 지역을 살펴볼 때 그 당시에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열두 지역에는 유다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유다에 대한 편애가 있었으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 분열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4 장에 있었습니다. 그 열두 지역 가운데 유다에 대한 언급은 내 이름이나 그 지역에 대한 설명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도 유다의 영토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유다는 솔로몬에게 매달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면제되었는데,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지파인 유다를 편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족을 편애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분열되는 경향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의 현 시점에서 분열 그 자체와 왕국이 두 부분으로 분열되는 상황의 배경과 관련된 몇 가지 요인일 뿐입니다.

2.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고 솔로몬의 죽음 - 열왕기상 11:26-41 좋습니다. 시트의 "2"번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고 솔로몬의 죽음"입니다. 열왕기상 11 장 26~41 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흔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도 불린다.” 그는 솔로몬의 궁정 관리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노동력을 감독했습니다.

28 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유능한 사람이라 솔로몬이 그 소년의 일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족속의 모든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로써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와 그 지파의 영토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 두 지파의 노동력을 감독했습니다. 그 자신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26 절에 보면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요 에브라임 사람이었더라.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은 남쪽의 대지파에 대응되는 북쪽 지파였습니다. 아히야가 와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에게 좋은 일부를 주시리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도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나는 37 절에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스릴 것이니라”(아히야의 말씀에 있음)라는 구절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그 나라를 생각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노동력을 맡은 에브라임 사람인 이 사람은 분명히 이미 통치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 아히야와 마주하여 말과 상징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은, 아히야가 이 옷을 가지고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열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여호와께서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그에게 열 지파를 주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31 절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과 내가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만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서 열 지파를 취하여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과 상징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히야는 더 나아가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4-35 절에 “내가 온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리니 그가 평생에 왕노릇하리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도록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고 열 지파를 네게 주리라.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서 내 종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그가 이 열 지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아들의 시대에 일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솔로몬의 죽음을 기다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도 반란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26 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배반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으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 시삭 왕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했다는 26 절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는 40 절을 함께 대입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도 전에 성급하게 북방 지파들을 장악하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종류의 것은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좌에 오를 때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통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길한 징조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가 왕국을 성공적으로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로 도피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 이유는 그의 가계, 즉 그의 후손들 중에서 열 지파를 취하심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번 주 초에 살펴본 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9-13 절: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11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 태도가 이러하고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그 중 한 사람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아. 그러나 나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이유를 거기에서 그리고 또한 오늘 밤 우리가 볼 장의 33 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몰렉을 경배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또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그는 언약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좇았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숫자 “2”,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 장 끝부분 41 절에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모든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나타낸 지혜는 솔로몬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십 년 후에 그 열조 와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태도 – 열왕기상 12 장 그래서 우리는 “3”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2 장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1 장의 끝 부분에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정상적인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 장 1 절에 “르호보암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갔던 세겜으로 갔다”고 하는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부 부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나중에서야 그는 북쪽 지파들의 왕으로 받아들여지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왕위계승이 이루어지자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북쪽 지파들의 인준을 받아 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2 절에서 애굽으로 도망한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애굽으로 돌아와 그 곳에 있게 되었다고 읽습니다. 그 모임에서 당신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 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우리에게 지운 그 힘든 수고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점을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조언했던 몇몇 조언자들과 상의했고, 그들은 그에게 동의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들은 그에게 더 젊은 조언자들과 상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0 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이 대답하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여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더 가볍게 하소서 하는 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은 내 새끼손가락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허리보다 두꺼워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니 내가 그것을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채찍질하였으니 나도 전갈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니 나도 전갈로 너희를 치리라.” 전갈은 금속이나 돌 등 잘릴 수 있는 날카로운 돌기로 채워진 가죽 끈입니다. 임무는 강화되고 형벌은 강화되며, 확실히 이 말은 어리석은 태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에 대해 관심과 연민을 갖고 있는 진정한 언약의 왕의 말이

아닙니다. 통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답은 16 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몫이 있으며 이시의 아들과 무슨 몫이 있느냐. 오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네 집을 돌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대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8 절에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역을 맡은 아도니람을 보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느니라. 르호보암 왕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느니라.” 열왕기하가 기록되는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즉, 이 시점의 왕국은 분열되었고 나머지 역사 동안 분열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써 열왕기상 11 장 39 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아히야가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멸시할 것이나 영원히는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예언은 성취되었고, 유다는 기원전 722 년에 북왕국이 앗수르로 끌려가는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 동안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16 에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시와 히브리 산문 사이의 구분선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산문과 시를 구별하는 히브리 시의

특징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은 평행법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다윗과 어떤 몫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평행선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윗아, 네 집을 돌보아라!" 거기에는 이중 평행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문에서도 그런 평행법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예입니다. 물건을 넣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 종류의 반복적인 수사법은 일반적으로 셈족 글쓰기의 특징입니다.

1.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하려는 르호보암의 시도(왕상 12:21-24)

네, 그것은 "3"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a"는 "The Disruption"입니다. "b"는 "유다의 처음 세 왕"을 의미하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이다. 따라서 "1"은 르호보암입니다. 왕상 11:42-14:31 은 역대하 9:31-12:16 과 평행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개요에도 두 가지 하위 요점이 있습니다. "a"는 "이스라엘을 재정복하려는 르호보암의 시도, 열왕기상 12:21-24"입니다. 그리고 "b"는 "이집트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하려는 르호보암의 시도를 살펴보겠습니다(왕상 12:21-24). 그 장의 끝 부분이 아니라 21 절의 시작 부분에서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을 강제로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왕국의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그는 선지자와 마주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고, 스미야는 르호보암에게 와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4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 곧 선지자의 말을 따르더라. 그는 계획을 취소하고 부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 르호보암과 애굽의 관계 - 열왕기상 14 장 "b"는 "그와 애굽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14 장으로 건너됩니다. 열왕기상 14:25-28.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열왕기의 기자가 12 장의 그 지점에서 여로보암과 금송아지들과 그 밖의 사람들과 함께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동하고 14 장까지 르호보암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 이후. 그러나 열왕기상 14 장 25 절을 읽어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더니. 그는 성전과 왕궁을 약탈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가져갔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대신하여 놋방패를 만들었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언급은 성경의 추가 증거로 입증되는 왕국 시대의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집트 기록을 통해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는 더 큰 캠페인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단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급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캠페인의 승리 비문이 테베의 한 신전 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에서 시삭은 자신이 약탈한 수많은 도시를 나열합니다. 이건 재미 있네; 그들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에도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이 너무 이르게 솔로몬에게 반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이집트로 도망하여 시삭과 함께 피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과 시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삭이 가나안 땅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격을 받는 곳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삭과 이스라엘 이제 여러분이 이 두 권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헌의 두 표준 권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James Pritchard 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이 책은 *Ancient Near Eastern Texts*(*고대 근동 텍스트*) 라고 불리며 ANET 으로 약칭됩니다. 구약과 관련된 *고대 근동 그림*이라는 동반 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첫 번째 권에서 번역된 텍스트는 두 번째 권에 그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삭이 쓴 승리 비문의 본문은 이 *고대 근동 문헌* 의 263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그림*에는 그림 349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전달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8쪽에 있는 그림 349,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삭의 그림을 볼 수 있고 그 주위에 모든 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손크가 점령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도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는 시삭과 동일합니다. 쉘손크와 시삭도 마찬가지로 철자가 다른 이유는 이집트 상형문자를 발음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므깃도에서 발견된 시삭이라는 이름의 기념물 조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그가 이 캠페인 당시 므깃도에 일종의 승리 기념비를 세우고 그의 이름을 새긴 일종의 기념비를 세웠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264 페이지의 *고대 근동 문헌*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이에 대한 사진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에 언급된 시삭의 공격입니다.

여기에 *평행 구절인 역대하 12장에 공격과 그 이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을 보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북쪽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했던 선지자인 스미야가 나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삭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지도자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를 시삭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은즉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속히 구원하여 주리라. 나의 진노가 시삭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아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 왕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는 성전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르아봄과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공격이 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다고 고백하자, 여호와께서 상황을 개선하셔서 그들이 약탈을 당하더라도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 – 아비야 좋아요, 그것은 “르호보암과 그의 이스라엘 정복 시도”와 이집트와의 관계입니다.” 둘째, 아비야(Abijah) 또는 아비암(Abijam)은 그의 이름이 두 가지 형태로 모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4:31-15:8 그리고 역대하 13:1-22 과 병행됩니다. 아비야는 단 3 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14:31 에서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읽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15 장 1 절을 읽어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삼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보다 먼저 행한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는 여호와에 대한 충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5 장 3 절은 “그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하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를 살려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13:15-18 에서 우리는 그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3:15: “유다 사람들이 전쟁의 함성을 지르니라. 전쟁의 함성이 들리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용사 중 사상자가 오십만 명이 되었더라.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복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승리한 것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그에게서 벧엘과 여샤나와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아비야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다시 권세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삶이 믿음과 불신이 혼합된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삭이나 북쪽에서 오는 이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은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비였으나, 이는 아비아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마땅히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열왕기서 3 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치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열왕기는 아비아를 별로 다루지 않았고 그의 통치도 짧았습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 아사 유다의 세 번째 통치자인 아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왕상 15:8-24, 역대하 14-16). 이제 아사는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흔한 해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오랜 통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5 장 9 절에 보면, “여로보암 제이십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일년을 통치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보다 더 길다. 사울의 통치 기간은 다소 모호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을 설명하는 구절에 텍스트 오류가 있습니다. 삼상 13:1 나는 믿습니다. NIV 에서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삼십 세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느니라”고 NIV 는 말합니다. “42 년” 그러나 그 “40”은 “30”과 마찬가지로 삽입이었습니다. 본문에 삽입 내용이 있습니다. NIV 본문 주석에 히브리어에는 “40”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는지는 다소 모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에 사울의 통치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3:21 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그때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므로 왕이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었으니 그는 사십 년간 다스리니라.”

하지만 삼상 1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1 히브리어 본문에는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한 살이라 이년을 치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장은 “그가 사십년 동안 통치하니라”고 말합니다. NIV 의 내용대로 읽으면 그는 “40 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2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40 은 더 정확한 42 에 비하면 어림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상 13 장 1 절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텍스트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42 년 동안 통치했다면, 내가 방금 아사에 관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은 아사가 사울, 다윗, 솔로몬보다 더 오래 통치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마흔한 해 동안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40 년 동안 통치했고, 솔로몬은 40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 2 장 10 절에서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어 사십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칠년을, 예루살렘에서 칠년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1 장 42 절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사십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사는 사십일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마음이 의로운 선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5:1 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15:11]. 그는 신당의 남창들을 땅에서 쫓아냈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심지어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역겨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를 폐했습니다. 아사는 그 장대를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격은 14 절에 있습니다: “아사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나 평생에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하였더라. 그는 그와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은금 그릇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왔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이 온전하여도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은 열왕기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곳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소 복잡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5 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Kristen Ramey 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